

- 주요 뉴스: ECB의 9월 통화정책회의 개최, 주요 정책금리 0.75%p 인상 여부에 관심
 - 미국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 시대의 대중 무역제재 유지할 계획
 - 유럽, 유동성 지원 등 에너지 위기 관련 긴급 대책을 확대
 - 일본 재무상, 필요 시 엔화 약세 관련 적절한 대응에 나설 방침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가능성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3.3%], 달러화 강세[+0.7%], 금리 상승[+15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매도 증가
 유로 Stoxx600 지수는 에너지 위기 관련 불안 등으로 2.4%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양호한 8월 고용 및 제조업 지표 등이 영향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1.8%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강력한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의지 등이 반영
 독일은 ECB의 큰 폭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14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2.3% 상승, 한국 CDS 하락

		9/2일	8/26일	전주말대비			9/2일	8/26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924.3	4,057.7	-3.29%	국채 금리 10y	미국	3.19%	3.04%	15bp
	유럽	415.97	426.09	-2.38%		독일	1.53%	1.39%	14bp
	중국	3,186.5	3,236.2	-1.54%	CDS 5y	한국	32bp	35bp	-3bp
	일본	27,651	28,641	-3.46%		중국	73bp	70bp	3bp
	한국	2,409.4	2,481.0	-2.89%	위험 지표	EMBI+	442	421	21bp
환율	달러지수	109.53	108.80	0.67%		VIX	25.47	25.56	-0.35%
	유로화	0.9954	0.9966	-0.12%		WTI유	86.87	93.06	-6.65%
	엔화	140.20	137.64	-1.83%	원자재	구리	342.2	369.7	-7.45%
	위안화	6.9000	6.8717	-0.41%		금	1,712.2	1,738.1	-1.49%
	원화	1,362.6	1,331.3	-2.3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ECB의 9월 통화정책회의 개최, 주요 정책금리 0.75%p 인상 여부에 관심

- ECB는 9/8(목)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할 예정. 이전부터 전문가들은 ECB의 큰 폭 금리인상을 예상. 다만 지난 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발표된 이후에는 보다 많은 ECB 주요 인사들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더욱 강력하고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
- 유로존 경제는 러시아의 대규모 가스 공급 차단 등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심화되고 있으나, ECB는 인플레이션 안정을 더욱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
- Morgan Stanley의 Jens Eisenschmidt는 이번 통화정책회의의 핵심 사안은 금리인상의 폭이라고 언급. 현재 0.50%p 혹은 0.75%p 인상 확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점차 0.75%p 인상으로 중심이 기울고 있다고 진단. 시기 측면에서 지금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 의지를 피력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설명
- 금리인상 이외에도 ECB는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의 축소를 통한 유동성 조절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 다만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된 결정은 10월 혹은 12월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
- 한편 Allianz는 ECB가 내년 초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 유로존은 금년 4/4분기 경기침체를 겪게 되고, 내년 성장률은 -0.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 이에 내년 1/4분기 말 혹은 2/4분기 초에 첫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바이든 정부, 트럼프 정부 시대의 대중 무역제재 유지할 계획

- 트럼프 정부 기간에 시행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발표. 무역대표부도 다수의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

■ PIMCO, 미국 증시는 내년 상반기 저점을 확인할 가능성

- Erin Browne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내년 초까지 금리인상, 소비자 지출 약화,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주가 하락을 전망. S&P500 지수는 내년에 3500~375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나, 최악의 경우 3000을 기록할 수 있다고 첨언

■ 유럽, 유동성 지원 등 에너지 위기 관련 긴급 대책을 확대

- 러시아의 노드스트림을 통한 가스 공급 중단 이후 독일 정부는 전력 생산업체들의 최대 이익을 제한하여 가계와 기업에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예방할 방침. 스웨덴과 핀란드 당국은 전력 생산업체에 긴급 유동성 지원을 제공할 계획. 이외에도 다수 국가들은 에너지 시장에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 프랑스 재무장관,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시행 과정에서 EU의 연합이 중요

- 르 메르 재무장관은 일부 국가들이 G7의 이번 결정을 지지하는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잘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 아울러 모든 역내 국가들로부터 승인을 받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부연

■ 유로존 7월 생산자물가 상승률, 오름세 지속. 에너지 가격 급등 등에 기인

- 7월 생산자물가(PPI)의 연간 상승률은 37.9%를 나타내 전월(36.0%) 대비 높은 수준.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도 4.0%를 기록하여 전월(1.3%) 대비 상승. 특히 월간 기준 에너지 가격이 9.0% 올라 전체 PPI를 끌어 올리는 모습

■ 8월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지수, 전월비 하락하며 5개월 연속 내림세

- 해당 지수는 138.0을 나타내 전월(140.7) 대비 낮은 수준. 3월 사상 최고치(159.7)를 나타낸 후 하락 지속. 이는 우크라이나의 곡물수출 재개 및 공급차질 완화 등에 기인. 다만 최근 이상 가뭄 등으로 옥수수 등 일부 곡물가격은 상승세

■ 일본 재무상, 필요 시 엔화 약세 관련 적절한 대응에 나설 방침

- 스이치 재무상은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과도하고 불규칙적인 환율 움직임은 경제 및 금융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 이에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첨언. 이번 발언은 엔화 약세 중단에 일조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5 현지시각 기준)

- 미국 노동절(휴장), 영란은행 맨 위원 강연, 유로존 7월 소매매출
- 유로존 9월 섀틱스 투자자신뢰 및 8월 S&P Global 종합 PMI(수정치)
- 중국 8월 차이신 서비스 PMI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실질금리 급등, 금융자산 전반에 부정적 영향 - 블룸버그

(Surge in Real Rates Hits Every Asset on Wall Street and Beyond)

- 최근 단기 실질금리가 '20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 연준의 고물가 통제를 위한 긴축정책 강화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전망. 실질금리 급등은 주식, 채권, 금, 암호화폐 등 대부분의 자산 가격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실제로 잭슨홀 미팅 이후 10년물 국채금리는 30bp 상승했고, 나스닥100 지수는 8% 하락
- 아울러 실질금리 상승은 경제성장도 훼손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 특히 10년물 국채의 실질금리는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1.0%)에 근접. 이에 당국은 최근 고용여건이 양호하지만 신중하게 통화정책을 결정할 필요

■ 신흥국 간 통화가치 하락의 차별화, 국가별 상이한 경제구조 등에 기인 - WSJ

(Emerging-Market Currencies Face Different Degrees of Pain)

- MSCI 신흥국 통화지수는 연초 대비 6% 하락. 한편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는 같은 기간 동안 4.5% 절하되어 하락폭이 제한. 반면 태국과 헝가리의 통화가치는 각각 11%, 23%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통화가치가 하락폭이 큰 편
- 이는 각국의 경제구조가 다르기 때문. 인도네시아는 원자재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가 개선되었으나, 태국의 경우 주요 산업인 관광업 침체 등으로 통화가치가 큰 폭 하락. 이를 고려 시 연준의 통화긴축에 따른 국가별 고통의 크기도 상이할 것으로 추정

■ 미국 연준, 8월 신규고용 둔화에도 큰 폭의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 - Financial Times

(Slower pace of US jobs growth offers some relief for the Fed)

■ 중국의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하락을 유도하여 인플레이션 완화에 기여할 소지 - WSJ

(A Slowing China Helps Rein In Inflation Around the World)

■ 러시아 원유가격 상한제, 중국 등 G7 이외 국가 참여 여부가 생파의 관건 - Financial Times

(G7 countries back price cap on Russian oil)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